매일 INDEX

3면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하자"

전주매일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음 7월 19일) 제381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전북, 국가 성장축으로 도약

국정라인 전북 인사 대거 등용 · 25개 국정과제 반영
9.5조 국비 확보 '쾌거' … 새만금 개발 정상화 기대감
RE100 · 메가샌드박스 등 미래 신산업 거점 구축 박차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랜 소외와 차별의 역사를 넘어 '삼중소외'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핵심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과제 반영, 대규모 국비 확보, 새만금 개발 본격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전방위적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이 국가 발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시절 전북 유세에서 '수도권 집중-지방 소외', '영남 중심-호남 소외', '호남 내 차별-전북 소외'로 지적되어 온 '삼중소외론'을 제기하며, 전북을 미래산업과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인재 양성, RE100(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화 산업 육성, K-푸드 등 K-컬처 활성화를 새로운 성장축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며, 그 중심에 전북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30년 이상 지연되어 온 새만금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해수 유통, 재생에너지, 산업·연구 거점 조성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핵심 라인에는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며 삼중소외 해소의 상징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위성락 안보실장(익산),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전주)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윤덕 국토부장관, 조현 외교부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 등이 중용되면서 전북이 국가 정책 결정의 핵심으로 진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25개 과제가 지역 핵심사업으로 확정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서 총 9조 4,585억원(1,228건)이라는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확보된 국정과제는 새만금, 신산업, 올림픽 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위상 강화, 문화, 농생명, 복지·안전 등 다채로운 분야를 아우르며, 정부의 '5극 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되어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

특히 2026년 국가 예산에 AI, 이차전지, 특장 산업 등 신규 사업을 위한 2,445억원(307건)을 확보하는 등 총사업비 11조8,000억원 규모로 향후 전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는 공항, 철도, 도로 등 SOC 사업비를 포함해 31개 사업에 1조4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새만금 개발은 드디어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 전략 산업기지 및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될 방침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신정부 경제성장 전략' 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재명 정부의 전북 7대 공약 실현을 위한 정치권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작업 또한 총력을 기울여 추진되고 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정부 주도 위원회 구성과 법령 제정을 추진 중이며, AI·피지컬 AI 기반 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예산 확보를 통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기지 구축의 핵심인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령 체계 설계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역시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의대법 제정 지속 추진, 전북 광역권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국가 물류·교통 체계 효율성 제고, 그리고 'RE100 산단 특별법'에 요금 감면, 세제 지원, 고용 환경 개선 등의 지원 방안이 담기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재명 정부 100일은 오랜 소외에서 벗어나 전북이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전북특별법 개정,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남은 과제들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가을축제 안전관리 우리가 직접 갑니다"

도, 합동점검반 구성 운영
안전 위해요소 사전 차단

전북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 개최되는 도내 지역 대표축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축제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축제장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9일 밝혔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과 경찰·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축제 개최 전 축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임시 무대·조명·천막 등 구조물의 설치 상태 △전선 노출, 문어발식 배선 등 전기시설의 안전성 △가스배관 및 LPG용기의 설치 상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확보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 'RE100 중심지' 선언 새만금, 미래 에너지 허브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박람회' 오늘까지
도 RE100 산업단지 비전, 주요 전문가와 공유
전북의 에너지 전환 정책 · 기술 한눈에 조망

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가 개막한 가운데,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RE100 산업단지 선도모델을 구축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전북자치도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새만금 RE100 미래를 여는 THE 특별한 전북의 100년'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 공동 캠페인이다. 전북은 새만금 일대에 RE100을 구현할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는 전북의 RE100 비전을 알리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개막식에서는 배지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RE100산단'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는다. 오후에는 방송인 럭키와 다니엘이 '환경과 에너지'의 대한 내용으로 특별강연을 선보인다.

RE100 포럼은 3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AI와 에너지, 분산형 시스템, RE100 글로벌 혁신 모델 등을 다루며 최신 기술 트렌드와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다. 수소·풍력·분산에너지 분과 포럼도 마련돼 각 영역별 전문 토론이 이어진다.

컨벤션센터 1층에서는 전북도 홍보관과 18개 기업 전시부스가 운영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현대건설, 한국해상풍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주요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 기술과 미래 비전을 선보인다. 도내 대학의 석·박사 연구성과 포스터 전시도 함께한다.

박람회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참관이 가능하며, 기업·연구기관·학생 등 에너지 산업 관심자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군산대 RIS사업단은 중·고등학생 대상 신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재 양성에 힘쓴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산학연관 연계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성장할 충분한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RE100을 향한 해법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드넓은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해상 풍력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이번 박람회가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뜻깊은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